

전국언론노동조합, 미디어 비정규직 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2021. 11. 24. 이미지 언론노조 특임부위원장

□ 부산 민언련, 부산지역 언론사 비정규직 현황 조사

- 신문사 포함한 지역 주요 언론사 비정규 실태 점검 ‘의의’
- 지역의 특수성 vs 전국적 공통성
 - 지역 미디어비정규직 업무 현장은 대개 주요 언론사
: 종속성 · 업무 지속성 · 유대의식 높음... 근로자성 상대적으로 ↑
: 미디어 관련 사업장 수 제한적... 처우 개선 가능성 ↓
 - 미디어비정규직 불공정 실태 그대로 발현
: 디지털 업종 등 언론사 내 비정규 증가
: ‘의존적 자영 노동자’ 적 특징... 고용불안 · 개별화 노동

□ 미디어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살고 살아남기...언론노조 진행 사업

- 현재 조직화된 방송작가지부 · 다운분회는 지금?
 - 방송작가특별협의체 · 교섭 진행 중이나 한계 또한 명확
- 미디어비정규공동사업단 구성... 연대의 힘으로 돌파
 - 전태일재단 · 노회찬 재단 등 다양한 노동시민단체와 연대 중
 - 방송작가친구들 결성... 약 300명 연명/11월 20일 출범
 - 미디어노동공제회 추진 중... 수요조사 분석 · 품목 설계 중
 - 사회적 대화/집단 교섭 계획, 준비 중
- 언론노조 산하 지본부 내 전략조직(비정규) 사업 확대 중

캐나다 공영방송 CBC-캐나다 프리랜서 노동조합 가이드 라인	
프로듀서가 기억해야 할 다섯가지	프리랜서가 기억해야 할 다섯가지
우리는 모두 같은 팀이다. 생계를 위한 노동이다. 모든 프리랜서는 제각각 다르다. 최저임금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팀이다. 서면 계약을 작성하라. 적절한 임금을 요구하라. 그것은 당신의 저작물이다. 그것은 사업이다.

□ 미디어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살고 살아남기...언론노조 향후 전략

○ ‘근로자성 인정 투쟁+프리랜서 처우 개선’ ... 투트랙 전략

○ 근로자성 인정 투쟁

- 고용노동청 진정/개별 소송... 전향적 판결 다수
- 사업장별 근로감독 추진

:지상파 3사 근로감독 이미 시행... 1차 결과 사측 통보

:지역 방송사 추가 근로감독 계획 알려짐

:신문사 근로감독 추진될 경우 성과 있을 것으로 추정

○ 프리랜서 처우개선 전략

- 임금 관련

:서면계약서 내 용역 업무 명확화 /용역단가 표준화

:임금 최저기준, 최저임금 아닌 ‘생활임금’ 수준으로 인상 필요...
가칭 ‘미디어생활임금제’ 도입 추진(2022년 부산 생활 임금 시급 1만868원)

:지급 시기·방법 명확화... 서면계약서 명시/임금 내역 제공 필요

- 고용불안 관련

:주먹구구 계약 기간 조정 필요(가안, 지속 업무 경우 최소 2년으로 확대)

:사측 임의해지 구제 방안 필요

:천재지변·대형행사(선거·올림픽) 등 사측 임의 사유로 편성 축소
변경시 임금 보전 방안(가안, 일정 제작 횟수 미달 시 임금 보전)

○ 미디어 비정규 조직화... 어떻게 매듭을 풀 것인가?

- 미디어 비정규 실태 파악 한계

:방통위가 방송사 재허가 전제 요건으로 제시한 비정규실태조사 활용

:신문계열 디지털 비정규 인력 실태조사 필요

- 정규직 중심 언론노조 산하조직내 비정규직 조직화 방안 필요

:고령화·정규직 감소로 언론노조 조직 축소 상황 활용

- 비정규 직군별·지역별 조직화 방안도 고려 필요

- 고용불안한 ‘의존적 자영 노동자’ 위한 맞춤형 조직화 전략 필요

○ 감시감독 기구 설치 등 제도 정비·관련법 재개정 등